

#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홍보 팸투어

### 무주군, 국내 틱톡 유명 인플루언서 참여 발대식 갖고 설립 지지·적극 홍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총력을 쏟고 있는 무주군이 SNS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과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면서 공감대 형성에 큰 동력을 얻게 됐다.

지난 3일 오후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 정진욱 위원장 및 임원, 국내 틱톡 인플루언서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CG해주는 남자 강민수, 김다경, 설화꽃 트윙클립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홍보 팸투어' 발대식을 갖고 틱톡을 통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지지를 다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염원 퍼포먼스와 함께 문현종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사관학교에 대한 추진배경, 개요, 추진 상황 등을 공유하고 이들 인플루언서는 4일까지 태권도원으로 자리를 옮겨 투어 및 촬영에 임했다.

인플루언서들은 틱톡을 통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으며,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군민들의 열정과 마음을 함께 공감하면서 반드시 무주에 태권도 사관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들 틱톡 인플루언서들은 모두 5팀으로 나누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에 나설 것으로 보여 100만인 서명운동 동참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국민 지지세 확산에도 큰



지난 3일 오후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 정진욱 위원장 및 임원, 국내 틱톡 인플루언서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CG해주는 남자, 강민수, 김다경, 설화꽃 트윙클립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홍보 팸투어' 발대식을 가졌다.

보탬이 될 전망이다.

실제 이들 인플루언서들은 태권도의 성지인 태권도원에서 태권도 도복을 입고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지지해 주세요" 등의 퍼포먼스를 하고 '틱톡'에 올려 많은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적게는 15만명에서 많게는 1백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 홍보효과에 큰 기대가 된다.

틱톡의 특성상 15초~60초 정도의 동영상만 올리지기 때문에 짧으면서도 강렬한 홍보 이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전 국민들의 지지

를 이끌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게 무주군의 설명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명 틱톡 인플루언서들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홍보에 나서으로써 탄력을 받게 돼 설립 공감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태권도 사관학교를 반드시 태권도 성지인 무주에 설립해 태권도시 조성을 위한 태권도시 성지화를 이룩해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와 함께 내년 3월 치러질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위 활동에 돌입한 상태다.

무주=전문선기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 무주군,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무주군이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정부 대응책으로 마련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급되는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은 온라인의 경우 6월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은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다.

2021.6.30. 주민등록 기준과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1인당 25만 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금을 받게 되나, 고액자산가(재산이 9억 원 이하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는 제외 대상이다.

온라인 신청은 신용체크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신청하면 다음날 지원금이 충전되고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신청자 '본인명' 카드만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방문 신청)은 각

읍·면 맞춤형복지팀에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신청하면, 대상자는 선불카드를 즉시 지급받게 된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읍면 맞춤형복지팀은 장애인, 청장년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하여 주민의 불편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무주군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업종 제한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범위다. 군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잔액 환급은 불가능함에 따라 기한 내 전액 소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액 소비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복지과 감미경 과장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지쳐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며 "함께 하는 주민복지 실현을 이루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장수군 산서면사무소 경로당 내 옥영당에서 운영 중인 사예교실이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장수 산서면 경로당 사예교실 인기

### 주민 화합·친목 다지며 11년간 이어져

장수군 산서면사무소 경로당 내 옥영당에서 운영 중인 사예교실이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산서면 사예교실은 지난 2000년부터 11년간 이어져 온 수업으로 현재는 마을 어르신들과 주민들 30여 명이 화합과 친목을 다지며 사예 글씨를 배우고 있다.

사예교실 운영중인 권석희 선생은 10여 년 동안 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사예를 가르치고 있으며, 8년 동안 경로당 노인회장을 역임하며 노인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권석희 선생은 산서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년 산서향우회에 1,000만원을 기부하고 있으며, 사예교실 강사비도 사예교실에 회사에 사예교실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고 있다.

권석희 선생은 "앞으로도 사예교실을 열심히 운영해 산서면과 주민들, 그리고 사예교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서면 사예교실 회원들은 매년 1년 동안 작업했던 작품을 모아 정진한 실력을 검증하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장수=교관호기자

# 무주읍 수리재 터널 앞 회전 교차로 설치 여론 목소리 높아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사각지대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 구간은 무주읍 근영 아파트에서 수리재 터널(앞설)로 진입하는 군도 5호선과 시장에서 반딧불 아파트로 경유하는 오산~당산간 도로와 연결해 있다.



무주읍 수리재 터널 앞 도로

또 주민 박 모(64)씨는 "오산~당산간 도로는 외곽도로로 군민들의 산책로로 각광받고 있으나 수리재 터널 앞 사각지대는 주민들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보행하는 일이 잦아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안전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설과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8년, 2020년 두차례 도로교통공단

과 무주경찰서에 의뢰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했으나 현장 답사 후 추돌 등 도로 여건을 들어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인·허가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치 예정인 회전 로타리는 수리재 터널과 30m 이내로 가깝고 근영 아파트에서 직진 100m 구간은 10%의 경사로 때문에 도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단점이 있어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은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읍 수리재 터널 사각지대는 최근 5년(2015~2019)간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 100m 이내에서 2건, 차대차·추돌 충돌은 2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2020 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운영 결과 공시

### 살림규모 5786억원으로 전년 대비 256억원 증가

무주군은 2020 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운영 결과를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지방재정 공시는 지방재정법 8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매년 2월(예산기준), 8월(결산기준) 연회에 걸쳐 고시한다.

이 공시한 공시내용을 보면 2020년 무주군 전체 살림규모는 5,786억 원으로 전년대비 256억 원 증가했으며, 세

입재원 중 보조금(377억 원 ↑)이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증가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인 '자체수입'은 398억 원, 주민 1인 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88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의 '이전재원'은 3,586억 원,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804억 원 규모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보면, 살림규모 평균 6,031억 원으로 무주군이 245억 적지만, 채무액 평균은 5억 원

인 반면, 무주군은 채무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실 예산단 노동규 주무관은 "무주군의 살림규모는 채무가 없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양호한 추이를 보이지만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는 낮아 자부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8개 분야, 51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도표와 그래프 등으로 알기 쉽게 표시한 재정 운영결과를 홈페이지(열린군정→재정현황→예산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 진안고원물 입점 업체·농가 기본필수 교육 실시

진안군은 지난 3일 오는 10월 군 지역 온라인 쇼핑몰인 '진안고원물' 오픈을 앞두고 입점농가 및 업체에 대한 기본 필수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진안군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인 '진안고원물' 입점농가 및 업체에 대한 전자상거래 기본 필수교육 과정으로서 입점농가 및 업체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전준성 군수의 인사를 시작으로 지역의 실무강사와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해 입점농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으로 진행했다.

교육과정으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업부가가치 창출, '고객중심 마케팅 및 홍보', '상품관리 및 배송정책', 고객응대 기본교육, '스마트폰을 활용한 제품사진 촬영 및 쇼핑몰 상세페이지 작성실무'까지 5개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교육에 이어 입점농가 및 업체의 건의사항 등 의견청취의 시간을 갖고, 입점업체서 작성과 설문조사 등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군은 현재 30여 농가·업체 120여 가

공식품과 농산물을 입점대상으로 선정해 본격적으로 상세페이지 제작작업을 진행 중이며, 10월 8일 온라인 진안홍산축제 개막일을 전후해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운영 개시에 맞춰 카드뉴스 등의 SNS 홍보, 전단지 광고, 오픈기념 쿠폰 및 경품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입점농가에게는 택배비와 포장재 일부에 대한 지원을 해나가는 방침이다.

전준성 군수는 "우리 군 농업인과 가공업체 등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이끌어낼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홍보와 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인삼농가 대표자와 간담회

진안군은 지난 3일 대표작물인 인삼의 가격하락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전준성 군수와 재배농가 대표 5명, 전북인삼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코로나19 및 건강식품류인 인삼 제품의 소비 위축으로 인삼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인삼 재배 농가의 한숨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인삼가격은 지난해보다 20%, 2년 전보다는 4분의 1 이상이 하락하였고,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파산은 절반 이상 시장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인삼 재배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인삼 재배농가들은 가격 하락에 대한 농가의 어려움과 현실적 대책을 담은 건의서를 전 군수에게 전달했다.

건의사항은 ▲인삼 시장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생산비 보강, ▲진안산 소비 촉진, ▲진안산 수매, ▲인삼농가 폐업 보상책 마련, ▲농업 경영비 감소를 위한 보조사업 확대 등 5개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적상면 입산물 불법채취 근절 최선

무주군 적상면에서는 가을잠마가 길어지면서 예년보다 기후적으로 버섯류 출현이 빠른 것으로 예상돼 입산물 불법채취 단속에 본격 나설 계획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주부터는 추석맞이 벌초하기 위해 고향에 내방하는 귀성객들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입산물 불법채취 단속으로 적극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입산물불법채취 단속반은 해마다 반복되는 외부인들의 무분별한 채취로 산림자원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소득원을 빼앗아가는 불법채취 행위를 막기 위해 파수꾼 역할을 할 계획이다.

관내 3개 권역(소재지역역, 괴목권역, 삼방권역)으로 나누어, 4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기동단속 및 중점단속을 통해 불법채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순찰 강화 등 단속을 펼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국가안전대진단 민·관 합동점검 실시

김창열 진안부군수는 지난 3일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해 국가안전대진단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분야 전문가가 집중 점검을 실시했으며, 주요 점검 항목으로 ▲안전관리 실태 및 구조적 안정성 ▲배선 상태, 누전·배선용량단기 및 전기설비 관리 상황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작동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는 안전대진단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번 민·관합동 점검결과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기간 내에 보완·개선 조치 할 예정이다.

김창열 부군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수련시설의 안전을 위한 요인을 없애고 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생활 속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주민 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충실한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박찬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하여 지역관광 참여로 인한 심각한 군민생활고충을 언급하며, "군민들에게 힘이 되고 누구나 즐겨 찾는 관광무주를 만드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수확을 앞둔 농가에 대한 재해예방과 일손문제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하였으며, "돌아오는 추석에도 개인방역에 철저를 기하며 방문객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